

현대 여성복 컬렉션에 표현된 맥시멀리즘의 조형성에 관한 연구
- 2011년 ~ 2016년 여성복 컬렉션을 중심으로 -

김 경 희

성신여자대학교 의류산업학과 교수

The formativeness of Maximalism expressed in the
modern women's collection

- Focusing on the women's collection from 2011 to 2016 -

Kyung-Hee Kim

Prof., Dept. of Fashion Industry, Sungshin Women's University

(2017. 6. 7 접수; 2017. 8. 27 수정; 2017. 9. 14 채택)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the women's fashion field with the goal of creating creative and experimental fashion styles through the categorization of cases of women's fashion design expressed with Maximalism, a type of expression used in modern fashion, as well as analyzing and examining the formativeness of this style. Qualitative research was conducted through a literature review and design case analysis. The scope of this research was from 2011 S/S to 2016 F/W, and the regional scope included the women's collections from Paris, Milano, London and New York. The results acquired are as follows. Initially, exaggeration was expressed through excessively exaggerating the overall silhouette of clothing or exaggeratedly distorting certain parts of the overall silhouette. Secondly, decoration was expressed through the use of the same colors and materials and the addition of excessive details and trimmings to express an exaggerated style of clothing as well as to express a luxurious and handcrafted style of clothing. Thirdly, fusion was expressed through integrating multiple items from different cultures, deconstruction, which destroys the concept of gender and use of clothing, and fashion style that transcends time and space. Fourthly, non-structurality was expressed through differentiating multiple weight feelings applied to the left/right sides of clothing or expressing a structural designs that is asymmetrical to the upper/lower/left/right directions to create a silhouette that displays a creative avant-garde style. As examined above, it was found that the maximalism expressed in fashion after 2011 created new images and expressed maximized emotional orientations through the exaggerated use of multiple silhouettes and decorations or through the integration of colors, patterns, ages and images. Through this process, maximalism is expected to not only provide an infinite possibility to the modern fashion that pursues diversification and multiplication, but also serve as an example that represents diversified post-modernism fashion trends in the future.

Key Words: Maximalism(맥시멀리즘), exaggeration(확대과장성), decoration(장식성), fusion(퓨전성), non-structurality(비구조성)

[†]Corresponding author ; Kim Kyung-Hee
E-mail : kim1023@sungshin.ac.kr

I. 서론

현대 사회는 글로벌리즘(globalism)이 크게 부각되면서 점차 다양하고 복잡한 다원주의 경향들이 사회 전반에 걸쳐 나타나며 트렌드(trend)로 자리잡기 시작하였다. 다원주의는 다양성을 인정하고 특정한 사조나 스타일, 이념 등에 지배되는 것이 아닌 다수의 양식이 공존하는 문화적 접근 방식으로써 이러한 경향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손지현, 2004). 21세기 큰 주목을 받고 있는 맥시멀리즘(maximalism)은 이러한 다원주의를 배경으로 하는 포스트모더니즘(postmodernism)의 영향으로 등장하여 문학, 미술, 멀티미디어, 건축, 음악 등 다양한 예술 전 분야에 걸쳐서 표현요소들의 장식과 과장, 확장과 반복, 디테일과 화려함으로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다(佐和隆光, 1995; 이방원, 2012). 이러한 표현 특성은 패션 분야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현대 패션에서 맥시멀리즘은 왜곡성, 변형성, 과장성 등 요소를 혼합하여 복잡함을 매치시키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졌고 2000년 이후 미니멀리즘과 대조되어 주목받고 있는 극단의 추구 경향을 말한다. 이러한 맥시멀리즘은 과도한 구조와 화려하고 복잡한 장식성 등 다양한 표현 방법을 통하여 보다 과격적인 것을 선호하는 시대적 패러다임에 부응하고 있다. 특히 2010년 이후 맥시멀리즘은 미니멀리즘의 쇠퇴로 인하여 더욱 패션 분야에서 주목받고 있는 실정이다(김동욱, 2016).

패션디자인 분야에 있어서 맥시멀리즘을 주제로 다룬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현대 복식에 표현된 맥시멀리즘 연구(이효진, 2003)에서는 맥시멀리즘은 다문화적 조형성과 순수한 자연미를 추구하는 로맨틱 히피룩, 다기능적 조형성을 추구하는 로맨틱 스포츠룩으로 분류된다고 하였다. 2000년대를 중심으로 한 현대 패션에 표현된 맥시멀리즘에 관한 연구(박은경, 2008)에서는 예술 분야에 나타난 맥시멀리즘을 토대로 분석하여 패션에서의 맥시멀리즘을 퓨전성, 확대성, 장식성, 환상성 4가지 표현 특성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패션 컬렉션에 나타난 맥시멀리즘 패션 표현유형에 대하여 분석한 연구에서는 맥시멀리즘을 과장된 형태와 디자인으로 표현되는 과장성,

다문화적 경향을 멀티에스닉으로 광택이나 골드, 실버 등의 소재를 통한 조형성의 표현을 퓨처리즘, 강렬한 색채와 장식을 엘레강스, 장식성을 강조한 디자인을 로맨틱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이지현과 노윤선(2012)의 알렉산더 맥퀸(Alexander McQueen) 작품 분석을 통한 맥시멀리즘 연구에서는 알렉산더 맥퀸 작품의 맥시멀리즘 경향은 기존 복식과는 차별화된 독창적 세계를 창조하며 패션에 새로운 기술과 문화를 접목시켜 도전적이고 실험적인 스타일을 제안하였다고 하였다. 이외의 맥시멀리즘 관련 연구들로는 김현진과 이은숙(2011)의 맥시멀리즘 특징을 이용한 패션디자인의 표현성 연구, 김지혜와 유영선(2015)의 남성복에 나타난 맥시멀리즘의 표현 특성 연구(2015), 박수연과 김미영(2016)의 2010년 이후 레이 가와 쿠보의 컬렉션에 나타난 맥시멀리즘의 표현 특성 연구 등이 있으며 대부분 2011년 이전 패션에서 표현된 맥시멀리즘의 특성을 분석하였거나 특정 디자이너 컬렉션, 오트쿠튀르(Haute Couture), 남성복 컬렉션에서 표현된 맥시멀리즘의 특성에 관한 연구들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2010년 이후 미니멀리즘의 쇠퇴로 인하여 주목받고 있는 맥시멀리즘의 개념과 문학, 회화, 건축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표현 유형을 통하여 현대 여성복 패션에 나타난 맥시멀리즘의 표현방법을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분석과 분류를 통하여 2011년~2016년 현대 여성복에 나타난 다양한 맥시멀리즘 표현유형을 분석하여 2011년 이전과의 차이점과 공통점과 분석하고자 한다. 이 연구를 통하여 현대 여성복 디자인 연구에 기초 자료를 제공하여 창의적인 디자인 개발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이를 위한 연구방법으로는 문헌 연구 및 디자인 사례 분석을 통한 질적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문헌 연구는 현대 패션에 표현된 맥시멀리즘 표현유형의 고찰을 위하여 국내외 전문서적, 맥시멀리즘과 현대 패션에 관하여 선행 연구된 관련 학위 논문들, 학회지, 인터넷 자료들을 참고하여 진행하였다. 그리고 디자인 사례 분석을 위하여 맥시멀리즘 표현 기법이 가장 잘 나타난 현대 패션의 사진자료들을 보그사이트(<http://www.vogue.com>)를 통해 총 5,681

점을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연구의 범위는 2011년 S/S부터 2016년 F/W까지로 한정하고 지역적 범위는 파리, 밀라노, 런던, 뉴욕 컬렉션의 여성복 컬렉션을 대상으로 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맥시멀리즘의 개념

맥시멀리즘(Maximalism)은 ‘가장 효과적’, ‘최고의’, ‘최대한의’, ‘극대의’의 뜻을 지닌 형용사 ‘맥시멀(maximal)’에 명사,주의, 학설, 이즘(doctrine)을 뜻하는 접미사 ‘ism’이 붙어 형성된 단어이다(Maximal.n.d). 따라서 맥시멀리즘은 “더 많은 것이 많다” 또는 “큰 것이 아름답다”는 심미적 원칙에 기초를 두고 있어 확대 지향적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최대주의, 최대지향주의, 극대주의 등을 상징적 의미로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정선화, 2008).

맥시멀리즘은 1980년 이후 문학과 예술 비평에서 언급되어지기 시작하였다. Pincus-Witten(1983)은 1980년대 초반의 여러 미술 경향에 대하여 맥시멀리즘을 언급하였으며 구체적인 미적 특성을 논하지 않았다. 이후 Barth(1986)는 1986년 New York Times Book Review에서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가 신의 은총에 이르는 두 가지 반대되는 길을 깨달았는데 하나는 부정적인, 없음의 길을 통해서 또 다른 하나는 인간 관심사에 몰입하는 긍정적인 길을 통해서였다’고 하면서 처음으로 문학에서 맥시멀리즘에 대한 정의를 제공하였고 이러한 맥시멀리즘에 관한 논의는 다른 비평가의 문학과 예술의 맥시멀리즘의 논의를 끼쳤다.

박은경(2008)은 맥시멀리즘은 포스트모더니즘(Post Modernism) 사회 하의 모호함에 대한 일종의 문화적 현상으로 각 문화의 영역에서 시대적 구분이나 절대적 진리와 미를 추구한 가치체계 대신 다양성을 수용하며 독자성의 지향보다는 상호침투 현상의 특징이 있다고 하였다.

또한 맥시멀리즘은 인간의 감성에 충실하고 과거와 전통에 대한 관심이 다양한 양식으로 나타나는 포스트모더니즘의 한 경향으로 의복의 여러 요소와 이미지를 최대한 많이 표현하

는 특징이 있으며 단순히 ‘많음’에 의한 표현이 아닌 장식적인 요소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화려하고 장식적이고 섬세한 특징이 있다(명은정, 2005; 변혜진, 박선경, 2007).

이와 같이 맥시멀리즘은 다양한 예술 분야에 등장하여 이질적 문화가 혼용되어 나타난 문화현상으로 복잡하고 화려한 장식이나 형식적인 스타일의 탈피 또는 다양한 이미지를 혼합한 형태를 통하여 표현된다고 할 수 있다.

2. 맥시멀리즘의 표현 유형

1)

맥시멀리즘 문학의 기원은 ‘더 많은 것이 더 많다’ 또는 ‘큰 것이 아름답다’는 심미적 원칙에 기초를 두고 있으며 헤로도토스(Herodotos)와 투키디데스(Thukydidēs)·페트로니우스(Gaius Petronius Arbiter)등과 같은 고대 그리스 작가들까지 거슬러 올라간다(이방원, 2011). 이후 맥시멀리즘 문학이 하나의 독자적인 소설 유형으로 발전한 시기는 제 2차 세계대전 이후로 특히 1960년대와 1970년대에 걸쳐 크게 유행하였다(김옥동, 1992).

맥시멀리즘 문학작품의 특징은 그 시대를 최대한 담으려고 시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시대 자체가 되려고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문학과 예술, 과학과 기술, 심리학, 인류학, 철학, 역사, 종교, 문학 등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폭넓은 지식을 지향한다는 것이다(Delville & Morris, 2005).

따라서 맥시멀리즘 문학 작품은 분량이 몇 백 페이지에 달할 정도로 물리적인 면에서도 길이가 길고 규모가 큰 특징을 지니고 있으며 여러 플롯(plot)을 사용하고 복잡하게 전개되는 특징이 있다. 또한 맥시멀리즘 문학작품의 시간적, 공간적 배경은 미니멀리즘 문학작품보다 구체적이며 등장인물 또한 보통 30여명에 달할 정도로 많고 등장인물의 성격도 복잡하고 미묘한 특징을 지닌다(김옥동, 1992).

언어적 측면에서 맥시멀리즘 문학은 심미적 원칙에 기초를 두고 있어 장식적이고 수식적인 스타일을 사용하여 고양된 표현이나 길이가 길고 난해한 문장을 사용하는 것이 특징이다(이방원,

2011). 또한 맥시멀리즘 문학 작품은 ‘낮설게 하기’ 기법을 핵심장치로 사용하여 재현성에 도전하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특징은 자기반영성을 강조함으로써 반재현성을 강조하여 리얼리즘(realism)이나 모더니즘(modernism) 전통과는 다르게 언어적 유희를 추구한다(김옥동, 1992).

맥시멀리즘 문학의 대표적인 작가로는 도스토옙스키(Fyodor Mikhailovich Dostoevskii, 1821~1881)와 함께 19세기 러시아문학을 대표하는 세계적 소설가이자 사상가인 톨스토이(Lev Nikolayevich Tolstoy, 1828~1910)와 20세기 문학에 커다란 변혁을 초래한 “율리시스(Ulysses, 1922)”의 작가 조이스(James Augustine Aloysius Joyce, 1882~1941)등이다(김지혜, 유영선, 2015).

이와 같이 문학에서의 맥시멀리즘은 확대 지향적으로 스토리의 연결의 복잡성을 띠고 있거나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여 분량이 방대해지는 특징이 있다. 그러나 맥시멀리즘 문학작품은 사건이 전개되는 인물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표현하거나 시대적 사상, 작가의 사상을 적절히 나타내며 다양한 스토리의 전환을 통한 반어적, 유희적 표현들을 통해 독자들로 하여금 충격과 재미를 느끼게 한다(이방원, 2011).

2)

1960년대 초 산업의 급속한 발달과 대중소비문화의 확산현상은 순수미술과 대중미술의 반기를 든 팝아트(Pop Art)라는 새로운 장르의 예술을 등장시켰다. 이러한 팝아트의 기법들은 오늘날 맥시멀리즘의 혼성적 표현 특성 중 시간적 혼성, 형태적 혼성, 공간적 혼성, 장르적 혼성, 재료 및 색채적인 혼성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이방원, 2011). Shokof(1991)는 1991년 그의 저서 “Maximalist Manifesto”에서 맥시멀리즘 작가의 예술 작품들은 비유적(Figurative), 상징적(Symbolic), 반어적(Ironic), 사회 비판적(Socially Critical), 정치적 의식(Politically Aware), 에로틱(Erotic), 유머러스한 시각, 미니멀리스트들의 작품과 반대되는 단순하지 않은 제작, 환상적(Fantastic)이나 변형되지 않은 광범위한 시각, 가상의 차원이 열려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이방원, 2011).

또한 Rivers(2008)는 그래픽 디자인에서의 풍부

함과 과도함을 미덕으로 하며 이는 시각 예술에서 장식적, 관능적, 환상적 특징을 갖는다고 하였다. 맥시멀리즘의 표현 유형은 여러 팝아트 작가들의 작품에서 잘 나타난다.

팝아트의 대표적인 작가인 워홀(Andrew Warhole Jr, 1928~1987)은 실존인물들의 사진이나 코카콜라 병, 켈벨 스프 등의 이미지를 통하여 대중문화의 평준화와 고급문화에 대하여 비판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그의 작품에서는 사회 비판적인 맥시멀리즘의 특성이 잘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이방원, 2011).

올덴버그(Claes Thure Oldenburg, 1929~)는 야구 글러브, 호미 등 일상 용품들을 대형 조각물로 제작하거나 변기, 공중전화 등 딱딱한 일상용품을 부드럽고 유동적인 소재로 제작하는 등 사물의 크기를 비정상적으로 확대하거나 오브제 소재의 속성을 바꾸기도 하였다. 이러한 표현 기법은 맥시멀리즘의 표현 특성 중 형태적 속성, 재료적인 속성을 잘 나타냈을 뿐 아니라 관객에게 낮설고 당혹스러운 느낌을 줌으로써 해학과 즐거움을 제공한다(박은경, 2008).

다카시(Murakami Takashi, 1962~)의 슈퍼플랫(super flat)은 문화, 하위문화, 소비자 중심주의와 성도착을 표현하는 예술스타일이다. 이러한 예술스타일은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팝아트, 일본 전통회화, 애니메이션, 만화 등 다양한 장르의 예술을 접목시켜 만든 새로운 표현기법을 맥시멀리즘의 장르적 혼성이 잘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이 회화에 나타난 맥시멀리즘은 기존의 대중미술의 범위를 벗어나 형태의 변형, 소재의 변형, 장르의 혼성 등 창조적인 작업과정을 주축으로 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맥시멀리즘의 표현 유형은 새로운 시각의 변화와 발상의 전환을 유도하고 이를 통한 풍부함과 과도함의 결합과 낮섬을 통한 해학이 나타난다.

3) 건축

건축에서 맥시멀리즘의 기원은 16세기 르네상스 후기의 매너리즘 양식으로 여러 종류의 선들과 상이한 양식 요소들이 혼재되어 결합된 구조로 표현된다(박은경, 2008). Carol(2003)은 이러한 표현 유형은 17세기 바로크로 이어지며 필요 이

상의 호화로움, 육중함, 다양한 색조, 극적인 경관, 사치스러운 장식, 건축, 회화, 조각의 혼합, 표면의 조형 처리 등을 통하여 총체적 환경 창조를 추구한다고 하였다. 18세기 이후 맥시멀리즘은 다양한 모티브와 유희적인 장식과 함께 여러 시대, 문화, 장르의 다양한 요소들을 결합하거나 지나치게 화려하고 역동적인 효과와 장식적이고 과장된 형태, 비실용적인 형태의 표현을 통하여 감각과 감성을 압도하거나 극대화시켰다. 1970년대 전후 맥시멀리즘은 포스트모더니즘과 함께 다시 나타났으며 포스트모더니즘의 등장은 새로운 기술을 활용하면서 장식 회화와 공예의 부흥, 문화의 혼합으로 인한 콜라주 효과를 만들어냈다(박은경, 2008).

따라서 맥시멀리즘은 새로운, 복잡한, 극단의 스타일이며 절충적 모더니티(Eclectic Modernity)를 확립하려는 의도를 수용하고 모호(Ambiguities), 긴장(Tension), 질서를 거스르는 것을 추구하는 개념적, 기술적 도구들을 통하여 다양한 영역을 변화시키고 있다. 맥시멀리즘은 이러한 변화로 인하여 과잉, 퓨전, 과장, 장식의 넘침, 비합리적 또는 불가능한 형태, 감각의 풍부함, 새로움 및 과도한 즐거움으로 표현된다고 할 수 있다(Cuito, 2002).

인테리어(interior)에서 맥시멀리즘은 여러 시대와 문화의 혼합, 과도함과 화려한 장식으로 나타나며 극도로 거대 규모의 건물들이 지어지고 복합 재료와 다양한 선을 사용하여 복잡한 장식을 표현한다(이방원, 2011). 이러한 맥시멀리즘의 공간 특성은 서로 다른 요소들의 융합인 혼용(Mix & Match), 극단적 쏠림 현상과 극대화로 인한 데포르마시옹(Deformation)의 표현이며 순환과 반복적 트렌드의 흐름과 감각적 정서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김정연, 2007).

이와 같이 건축에 표현된 맥시멀리즘은 여러 시대와 문화 등의 혼합과 다양한 요소들과의 결합과 과장된 형태를 통하여 기존의 틀을 벗어나려는 실험적 시도를 최대한 추구하고 새로운 요소들의 재탄생과 감성적 즐거움을 표현한다고 할 수 있다.

디자인 분야에서 맥시멀리즘의 기원은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산업혁명의 대량생산에 반대하여 나타난 윌리엄 모리스(William Morris)의 미술공예운동(Art and Crafts Movement)라고 할 수 있으며 이 운동은 풍부한 장식적 요소를 중요한 표현양식으로 인식한다(조규화, 2002). 이후 미술공예운동은 아르누보(Art Nouveau)로 발전하였으며 아르누보 양식은 건축 및, 생활용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유연하고 동적인 곡선, 화려한 장식 등으로 표현되어졌다(이방원, 2011).

1960년대 이후 이러한 표현기법은 19세기 낭만주의자들의 영향을 받아 제작된 사이키델릭 록 그룹들의 공연홍보물에서 볼 수 있다(Gastaut, 2005). 이 공연 홍보물들은 정교하고 장식적인 선들과 패턴으로 구성되어 있어 19세기 아르누보의 상징주의 형식이 잘 표현했을 뿐 아니라 강렬한 보색대비와 착시효과를 이용하여 사이키델릭의 환각적인 경험에서 얻은 현란하고 화려한 원색적인 빛(Light Show)을 표현하기도 하였다(황지현, 2006).

이러한 맥시멀리즘의 경향은 2000년대 이후 미니멀리즘(Minimalism)의 쇠퇴로 인하여 다시 등장하게 되었다(김지혜, 유영선, 2015). 2000년대 후반 이후 맥시멀리즘은 미디어와 매체의 발달로 인하여 그래픽 디자인(graphic design) 분야에서 다양하고 독특한 재료를 사용하거나 텍스처(texture)를 변화시키거나 화려한 장식들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표현 방법은 유희적이고 그 시대, 문화, 이미지 요소들을 반영하여 최대한 과장되고 복잡하게 사용하거나 극대화시킨 장식을 보여주는 일러스트레이션 작품들에서 잘 나타난다(이방원, 2011).

이와 같이 디자인 분야에서 표현된 맥시멀리즘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그 시대를 반영하여 패턴과 문양이 변하거나 소재와 표현 매체가 기능화되고 스마트화되어졌다. 그러나 맥시멀리즘을 표현하는 방식은 변화하였지만 내재적인 가치는 여전히 풍성하고 화려함을 표현하고 있다. 다음은 <표 1>은 예술 분야에 나타난 맥시멀리즘의 표현유형에 대한 요약과 도출된 키워드를 정리한 표다.

4)

3. 맥시멀리즘의 패션 유형

<표 1> 예술 분야에 표현된 맥시멀리즘의 표현 유형과 도출된 표현 특성

분야	맥시멀리즘의 표현 유형	맥시멀리즘의 특성	도출된 표현 특성
문학	하나 이상의 플롯 사용	퓨전성	확대과장성 장식성 퓨전성 비구조성
	장식적, 수식적 스타일	장식성	
	언어적 유희	장식성	
	길이가 길고 난해한 문장 사용	확대과장성	
회화	공간의 변조	비구조성	
	이질적 사물의 결합	퓨전성	
	물체의 변형과 변환	확대과장성	
	반복과 복제	장식성	
	비정상적 확대	확대과장성	
	재료 및 색채적 혼성	퓨전성	
건축	극도로 거대한 형태	확대과장성	
	시대와 문화의 혼합	퓨전성	
	복잡한 장식	장식성	
	다양한 요소의 혼합	퓨전성	
디자인	장식적이고 관능적인 스타일	장식성	
	해체와 조합	비구조성	
	형태의 다양성과 대비	퓨전성	
	재료의 다양성과 표현방법의 다양화	퓨전성	
	표현방법의 다양화	퓨전성	

패션에서 맥시멀리즘은 형태나 실루엣, 액세서리나 부분적인 디테일, 재단, 장식 등 다양한 유형으로 표현되어지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표현 유형은 맥시멀리즘의 ‘큰 것이 아름답다’라는 궁극적 심미성이 다양하고 과장된 형태, 다양한 요소와의 혼합과 결합, 화려한 장식 등으로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이효진(2003)의 현대 복식에 표현된 맥시멀리즘 연구에서는 조형적 특성을 로맨틱 히피룩, 스포츠 룩 2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로맨틱 히피룩에서 보여지는 조형성은 다문화주의와 자연주의로 분석하였고, 스포츠 룩에서 보여주는 조형성은 다기능성 조형성, 크로스오버(cross-over)조형성으로 분석하였다.

박은경(2008)은 맥시멀리즘의 표현 특성을 퓨전성, 확대성, 장식성, 환상성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고 퓨전성은 동서양의 스타일의 혼합, 패턴과 디테일의 혼합으로 표현되고 확대성은 과장된 실루엣, 디테일의 과도한 중첩, 다양한 패턴 및 소재, 컬러의 믹스매치로 표현된다고 하였다. 또한 장식성은 수공예적인 장식과 디테일을 과잉으로 추가한 형태로 표현되고 환상성은 상상속의 이미지, 동화적인 이미지, 초현실적인 이미지로 표현

된다고 분석하였다.

또한 정선화와 정현주(2009)는 패션 컬렉션에 나타난 맥시멀리즘의 패션 유형을 과장성, 멀티에스닉, 퓨처리즘, 엘레강스, 로맨틱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 과장성은 신체의 과장과 더불어 실루엣과 상관없이 작가가 의도하는 조형성이라고 분석하였으며 멀티에스닉은 민속적이고 토속적인 소재들을 사용함으로써 표현된다고 분석하였다. 퓨처리즘은 광택이나 골드, 실버 소재의 독특한 사용으로 표현되며, 엘레강스는 라인이 변하거나 색채의 변화를, 로맨틱은 다듬어진 선, 형, 미묘한 색, 빛, 재질을 사용하여 표현된다고 분석하였다.

이지현과 노운선(2011, 2012)은 빅터 앤 롤프(Viktor & Rolf) 작품에 나타난 맥시멀리즘의 표현 특성을 확대성, 장식성, 환상성, 퓨전성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알렉산더 맥퀸(Alexander McQueen) 작품에 나타난 맥시멀리즘의 표현 특성은 확대성, 장식성, 퓨전성, 환상성, 실험성으로 분석하였다.

김현진과 이은숙(2011)은 맥시멀리즘 특징을 이용한 국내외 패션디자인의 표현성에 대하여 내용분석연구 방법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표 2> 패션에 표현된 맥시멀리즘의 표현 특성

연구자	맥시멀리즘 표현특성	맥시멀리즘 표현 방법
이효진 (2003)	로맨틱 히피룩	에스닉 감각의 다문화적 조형성, 순수한 자연미 추구
	로맨틱 스포츠룩	다기능적 조형성, 크로스 오버적 조형성
박은경 (2008)	퓨전성	시대와 스타일의 혼합, 색상 및 패턴과 디테일 혼합
	확대성	과장된 실루엣, 디테일의 과도한 중첩을 통한 거대조형
	장식성	수공예적이고 화려한 장식 추구
	환상성	기존 개념의 한계, 제약을 넘어 디자인
정선화& 정현주 (2009)	과장성	과장된 디자인
	멀티에스닉	다문화적 경향
	퓨처리즘	광택, 골드, 실버 컬러 등의 소재를 통한 독특함과 조형성 표현
	엘레강스	강렬한 색채와 장식
이지현& 노윤선 (2011)	로맨틱	장식성 강조
	확대성	형태의 확장과 과장, 극대화, 반복을 통한 중첩
	장식성	리본과 러플의 과다 사용, 의복 디테일의 과장, 섬세하고 정교한 소재 표현
	초현실성	현대적인 이미지와 자연이미지의 혼합, 초현실감각의 액세서리 혼합
김현진& 이은숙 (2011)	퓨전성	매니시한 디자인의 재킷과 에스닉한 패턴, 레트로 컬러의 매치
	확대과장성	과장, 과잉성이 주는 육중함, 풍만함, 과도함 이미지 표현
	장식성	퓨처리즘, 키치, 글램룩에서 나타나는 화려함, 강조 등의 이미지 표현
	혼합성	복고, 로맨틱 히피룩, 에스닉 등의 다양성, 독특성 등의 이미지 표현
이지현& 노윤선 (2012)	비구조성	비대칭, 비구조적 스타일이 주는 불균형, 왜곡성, 운동감 등 이미지
	확대성	의복과 액세서리의 확대, 과장된 실루엣, 디테일의 확대
	장식성	의복 디테일의 확대, 정교한 소재 표현, 컬러의 표현
	퓨전성	현대의 감각과 민족적 이미지 혼합, 여러스타일의 혼합
김지혜& 유영선 (2015)	환상성	현대적 이미지에 엉뚱한 요소 매치, 일상용품과 쿠티르 의상의 혼합
	실험성	이질적인 소재들의 결합, 복식의 재료로 부적합한 소재의 표현
	혼성적 맥시멀리즘	다른 문화 복식 아이템의 혼재, 해체적 사고의 스타일 혼합, 시공간을 초월한 패션의 혼성
	장식적 맥시멀리즘	수공예적 기법을 적용한 장식, 상반되는 이미지의 디테일과 트리밍의 과도한 사용, 여성복식 아이템의 접목
	과장적 맥시멀리즘	실루엣의 과장, 스타일링 방법을 변조한 극단적 전위성
박수연& 김미영 (2016)	유희적 맥시멀리즘	과장적 유희성, 새로운 룩의 창조
	복제적 맥시멀리즘	다른 시대와 다른 문화의 생생한 이미지 복제, 과거의 이미지 재현
	확대과장성	의복의 실루엣을 과도하게 부풀려 표현하거나 신체 일부분을 왜곡시켜 표현
	장식성	같은 소재나 컬러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의복의 과장을 표현하거나 다른 여러 가지 요소를 혼합하여 구조를 변화시키거나 결합을 시도하는 방법
	환상성	초현실적이고 유희적인 표현을 의복에 부여함으로써 신선한 자극과 환상을 불러일으키는 표현
	퓨전성	서양과 동양, 중세와 현대 등의 여러 가지 요소와 이미지를 결합시켜 새로움을 창조해내는 방법
실험성	분해와 해체를 통해 완성된 드레스와 독특한 소재로 만든 장신구 등 여러 방법을 사용하여 하나의 의복을 완성	
	비구조성	형태 자체의 비구조성을 이용하여 의복의 과장을 표현하거나 상하, 좌우 패턴의 구조적을 흐름을 흐트러뜨리면서 의복의 과장을 표현

이 연구에서 맥시멀리즘의 표현성은 확대과장성, 장식성, 혼합성, 비구조성으로 분류하였고 확대과장성은 상반신확대, 하반신확대, 상하반신 확대과장의 표현으로 분석되었고 장식성은 수공예로 공들인 장식과 에스닉 이미지의 표현으로 분석되었다. 혼합성은 반대법에 기인한 아이템의 혼합, 여러 문양을 믹스 매치한 문양의 혼합, 성의 혼합으로 분석되었고 비구조성은 비대칭적 소매, 비구조적인 스커트 햄라인 등 외형적 실루엣의 비구조성과 네크라인, 커프스 등 실루엣 내의 비구조성으로 표현되었다고 분석하였다.

박수연과 김미영(2016)의 연구에서는 2010년 이후 레이 가와쿠보(Rei Kawakubo)의 컬렉션에 나타난 맥시멀리즘의 표현 특성을 사례 분석을 통하여 6가지 특성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확대과장성은 의복의 실루엣을 과도하게 부풀려 표현하거나 신체 일부분을 왜곡시켜 표현하는 방식으로 분석되었고 장식성은 같은 소재나 컬러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의복의 과장을 표현하거나 다른 여러 가지 요소를 혼합하여 구조를 변화시키거나 결합을 시도하는 방법으로 분석되었다. 환상성은 초현실적이고 유희적인 표현을 의복에 부여함으로써 신선한 자극과 환상을 불러일으키는 표현으로 분석되었고 퓨전성은 서양과 동양, 중세와 현대 등의 여러 가지 요소와 이미지를 결합시켜 새로움을 창조해내는 방법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실험성은 분해와 해체를 통해 완성된 드레스와 독특한 소재로 만든 장신구 등 여러 방법을 사용하여 하나의 의복을 완성하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비구조성은 형태 자체의 비구조성을 이용하여 의복의 과장을 표현하거나 상하, 좌우 패턴의 구조적 흐름을 흐트러뜨리면서 의복의 과장을 표현한 방법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이 선행연구를 토대로 한 현대 패션에

나타난 맥시멀리즘의 표현 유형과 특성을 정리한 결과는 <표 2>와 같이 요약, 정리하였다. 또한 현대 패션에 표현된 맥시멀리즘의 조형성을 분석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하여 예술 분야에서 표현된 맥시멀리즘의 표현 특성을 도출한 결과를 바탕으로 선행연구에서 보여진 현대 패션에 나타난 맥시멀리즘의 특성을 도출한 결과는 <표 3>과 같이 확대과장성, 장식성, 퓨전성, 비구조성으로 분류되었다. 확대과장성은 확대성과 과장성은 실루엣이나 디테일의 중첩을 통한 과장된 실루엣, 의복과 액세서리 부분의 확대과장으로 나타났고 장식성은 수공예적이고 화려한 장식을 추구하거나 강렬한 색채와 의복 디테일의 과장으로 나타났다. 퓨전성은 다양한 문화의 혼합이나 순수한 자연미를 추구하거나 일상용품과 의상의 혼합을 통한 유희성 추구 등으로 표현되었고 비구조성은 기존 개념의 한계와 제약을 뛰어넘는 디자인이나 비대칭, 비구조적인 스타일이 주는 불균형, 왜곡성 등을 통하여 표현되었다.

III. 현대 패션에 표현된 맥시멀리즘의 조형성

문학, 회화, 건축, 디자인 등 예술 문화에 나타난 맥시멀리즘의 표현 특성을 살펴보고 여기서 도출된 표현 특성을 살펴보고, 맥시멀리즘과 패션을 주제로 한 선행연구를 통하여 현대 패션에 표현된 맥시멀리즘의 유형과 특징을 다른 내용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확대과장성, 장식성, 퓨전성, 비구조성으로 크게 4가지 특성으로 표현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2011년 이후 현대 패션에 나타난 맥시멀리즘의 조형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표 3> 맥시멀리즘의 표현 특성 구성요소

표현 특성	확대과장성	장식성	퓨전성	비구조성
구성 요소	과장된 실루엣, 디테일의 과도한 중첩, 의복과 액세서리의 확대	수공예적이고 화려한 장식, 강렬한 색채와 장식, 의복디테일의 과장	다양한 시대, 문화의 혼합, 일상용품의 혼합, 과장된 복식을 통한 유희성 추구	소재를 통한 독특함과 조형성, 비대칭, 비구조적 스타일이 주는 불균형, 왜곡성



<그림 1> Comme des Garçons 2016 F/W Collection (Vogue.com.n.d-a) <그림 2> Comme des Garçons, 2012 F/W Collection (Vogue.com.n.d-b) <그림 3> Thom Browne 2013 F/W Collection (Vogue.com.n.d-c) <그림 4> Paco Rabanne 2012 S/S Collection (Vogue.com.n.d-d) <그림 5> Viktor & Rolf 2011S/S Collection (Vogue.com.n.d-e)

1) (Exaggeration)

확대과장성은 패션과 더불어 건축화 회화, 디자인 분야에서도 인체와 복식간의 공간적 개념을 넘어서 과장된 실루엣이나 디테일의 과도한 중첩을 통한 거대 조형 등을 통한 확대와 과장으로 나타난다. 2011년 이후 현대 패션에 표현된 확대과장성은 패턴의 변형이나 다양한 소재의 중첩으로 실루엣을 과장하거나 의복의 특정부분인 어깨, 소매 형태, 소매 길이의 변화 등을 다양한 소재를 사용하여 확대, 과장시켜 표현하고 있다.

(그림 1)은 어깨와 소매, 하의의 좌우 양옆으로 딱딱한 소재를 사용하여 일본의 전통 사무라이 복식을 연상시키는 듯한 거대한 실루엣을 표현함과 동시에 복식의 복잡한 문양을 통하여 확대와 과장성을 극대화시켰다.

(그림 2)는 펠트 두 장을 잇거나 자른 후 붙여서 만든 오리가미 방식으로 제작한 것처럼 보이는 의상으로 앞판과 뒷판의 크기와 색상을 달리 하였다. 이러한 표현 방법은 내부에 보이는 앞판의 색상이 실제 신체 사이즈에 맞게 제작한 의복의 형태로 보이는 착시를 불러일으켰으며 거대한 실루엣이 돋보이는 효과를 연출하여 과장성을 더욱 부각시켰다. 톰브라운(Thom Browne)은 2013년 F/W Collection에서 격자 패턴 소재를 활용하여 직사각형의 실루엣의 아우터(outer)를 구현하였다. 이 의상은 네크라인부터 어깨까지 직선으로 이어지는 선으로 인하여 2차원적인 면의 형태를 뚜렷하게 연출함으로써 실루

엣의 왜곡과 과장성을 더욱 잘 나타냈다(그림 3). (그림 4)(그림 5)는 의상의 일부를 확대시킴으로써 장식적인 요소의 과장이 잘 표현된 사례이다. (그림 4)는 파코라반(Paco Rabanne) 2012 S/S Collection 의상으로 의복의 디테일(detail)요소인 러프(ruff)를 일반적인 비례를 초과하여 확대시켰다. 이러한 표현 방법은 의상의 전체적인 실루엣을 변형시켰을 뿐 아니라 장식요소의 확대와 과장을 통하여 맥시멀리즘을 잘 표현하였다. 또한 빅터앤롤프는 칼라와 소매 등 의복의 요소의 반복하여 과장시켰다. 이 의상에서는 칼라와 소매의 커프스를 몸판과 대비되는 화이트 컬러를 사용함으로써 장식적 요소의 확대과장성을 시각적으로 더욱 부각시켰다(그림 5).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11년 이후 확대과장성은 2011년 이전과 달리 과도하게 실루엣을 과장시키지 않는 표현과 다양한 소재나 소재의 중첩을 통하여 과장된 실루엣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의복의 요소인 소매나 어깨라인 등을 확대, 과장시켜 새로운 실루엣을 창조하거나 장식 요소의 확대와 중첩을 통한 과장으로 표현되었다. 이러한 확대과장성은 맥시멀리즘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화려함과 거대함을 보여주는 방법이며 동시에 의상 자체가 단순히 몸을 감싸는 의복의 개념이 아닌 디자이너의 창의적 의도와 작품세계를 제시하고 있다.

2) 장식성(Decoration)



<그림 6> Comme des Garçons 2016 F/W Collection (Vogue.com.n.d-a)



<그림 7> Alexander McQueen 2012 F/W Collection (Vogue.com.n.d-f)



<그림 8> Dolce & Gabbana 2013 F/W Collection (Vogue.com.n.d-g)



<그림 9> Lanvin 2012 f/w Collection (Vogue.com.n.d-h)



<그림 10> Thom Browne 2012 F/W Collection (Vogue.com.n.d-i)

장식성은 인간의 미적 요구를 표현하는 수단으로 장식을 통하여 인간은 안정감과 행복감을 느낀다.

장식성은 패션에서 의복의 전체 이미지에 많은 변화를 연출할 뿐 아니라 독창적인 면도 보완할 수 있어서 의복의 개성과 가치를 높여준다고 할 수 있다(노운선, 2012). 2011년 이후 현대 패션에 나타난 맥시멀리즘의 장식성은 현대 패션에서 추구하기에는 과잉 장식으로 나타나거나 반복적인 장식의 배열을 통하여 더욱 화려함을 연출하기도 한다. 이러한 요소들의 결합은 의복 자체가 아니라 장식이 더욱 강조하는 효과를 연출할 뿐 아니라 키치(kisch)적이거나 로맨틱(romantic) 감성, 에스닉(ethnic) 이미지를 잘 나타낸다.

(그림 6)은 과장된 어깨 라인부터 핑크 컬러의 광택 느낌이 나는 비닐 소재로 만들어진 러플(ruffle)이 층층이 덧대어져 있는 의상이다. 이 러플의 과잉 장식은 의상에 볼륨감을 더해 전체의 실루엣을 과장되게 표현해줄 뿐 아니라 웅장함까지 표현한다. (그림 7)의 의상은 전체적으로 눈꽃을 연상시키는 쉬폰(chiffon) 소재의 드레스로 입체적인 모티브의 러프(ruff) 장식과 여러 겹의 앙가장트(engageantes) 소매 장식을 통하여 전체적으로 통일감을 연출하고 있다. 이 의상은 반복으로 장식된 다양한 의복 디테일의 혼합을 통하여 로맨틱 감성을 표현하고 있다.

돌체앤가바나(Dolce & Gabbana)의 2013 F/W Collection 의상은 블랙 컬러의 드레스에 파스텔 컬러의 코르사주(corsage)가 원단 전체

에 반복적으로 장식하여 의복의 실루엣보다 코르사주를 시각적으로 돋보이는 효과를 연출하였다(그림 8). (그림 9)는 블랙 컬러의 슬리브리스 드레스에 화이트 컬러의 러플(ruffle)을 장식함으로써 여성미와 로맨틱 이미지를 극대화시켰을 뿐 아니라 이 의상은 입체적인 러플을 통하여 입체적인 조형미를 연출하였다. 또한 이 의상에서는 (그림 8)과 같이 컬러의 대비와 과잉 장식을 통하여 의복 본연의 형태보다 장식에 집중되는 효과가 나타났다.

툼브라운은 2012 F/W Collection에서 남성적인 느낌의 그레이 컬러의 슈트 앞부분에 전체적으로 과장된 형태의 화려한 리본 장식을 통해서 단조로운 슈트의 시선을 집중시키는 효과와 함께 리본 장식이 주는 화려함을 연출하였다(그림 10).

이와 같이 장식성은 2011년 이후 맥시멀리즘이 표현된 디자인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러플, 리본, 러프, 코르사주 등 다양한 의복 장식들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의복의 실루엣을 과장되게 변형시켜 표현하는 방법이 있다. 또한 장식성의 표현방법은 수공예적인 액세서리나 스팅글, 레이스, 모피, 폼폼 등 다양한 소재의 혼합과 혼재된 다양한 패턴의 혼합 등을 통하여 의복 자체보다는 장식이 더욱 강조되는 효과를 연출한다.

3) 퓨전성(Fusion)

퓨전성은 서로 다른 두 종류 이상의 것을 섞어 새롭게 만든 것을 의미하며 혼합과 중첩의 의미



<그림 11> Dries Van Noten 2012 F/W Collection (Vogue.com.n.d-j)



<그림 12> Moschino 2016 F/W Collection (Vogue.com.n.d-k)



<그림 13> Gareth Pugh 2015 S/S Collection (Vogue.com.n.d-l)



<그림 14> Rick Owens 2016 S/S Collection (Vogue.com.n.d-m)



<그림 15> Vetements 2015 S/S Collection (Vogue.com.n.d-n)

를 내포하고 있다. 여러 예술 분야에서 퓨전성은 다양한 시대와 문화의 혼합과 일상용품과 자연물과의 혼합, 이질적인 소재와 패턴의 혼합 등의 표현 기법을 통하여 극단의 혼합으로 인한 일탈적인 미를 추구하였다. 2011년 이후 현대 패션에서 나타난 퓨전성은 이질적인 아이템의 혼합이나 문화의 혼합, 다양한 소재의 혼합 등으로 표현된다. (그림 11)은 길이가 엉덩이 라인까지 내려오는 현대적이고 단순한 스타일의 드레스에 일본의 전통 민화를 프린트하여 표현한 의상이다. 이 의상은 과거와 현재의 요소와 더불어 동양과 서양을 혼합시켜 새로운 이미지를 제시하였다. 모스키노(Moschino)의 2016 F/W Collection의 의상은 천장에 붙어있어야 할 크리스탈 샹들리에를 드레스에 결합시켜 조화 속 부조화를 연출하였다. 이 의상은 비밀상적인 위치에 나타난 이질적인 오브제와의 결합을 통하여 강한 시각적 효과를 연출하였을 뿐 아니라 일탈적인 이미지를 표현하였다(그림 12).

이러한 이질적인 오브제와의 결합은 의상과 유기체간의 결합에서도 볼 수 있다.

(그림 13)은 두꺼운 흰 종이로 제작된 소머리(steer skulls made from papier-mâché)를 인체의 형상과 결합하고, 머리를 제외한 부분은 일반적인 의상 형태를 화이트 컬러로 통일시켜 이질감을 극대화한 의상이다. 또한 릭오웬스(Rick Owens)의 2016 S/S Collection에서는 실제 체조선수들이 모델로 등장하여 서로 엮고 엮힌 상태로 의복의 실루엣을 연출하였다. 이와 같이 인간을 오브제처럼 의복과 결합시킨 기이

한 표현 방법은 착용자와 관찰자의 고통을 통한 역설적인 쾌감의 발현을 표현한 것으로서 형태와 기존 오브제의 요소에서 벗어난 일탈적인 이미지를 나타내었다(그림 14). (그림 15)는 색다른 아이템의 조합과 소재를 조합시켜 디자이너들만의 이질적인 1990년대 스타일을 재해석하고 신선하고 새로운 스타일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이 2011년 이후 맥시멀리즘에 표현된 퓨전성은 다양한 문화와의 혼합과 일상용품이나 자연적인 오브제와의 혼합을 통하여 유희성과 에스닉한 이미지를 추구하였으며 이전과 달리 인체나 과거와 현대 이미지의 혼합 등 이질적인 소재의 혼합을 통하여 전위적이고 새로운 스타일을 창조하였다.

4) (Non-structurality)

비구조성은 좌우의 무게감을 다르게 처리하거나 구조적 디자인을 비대칭적으로 나타내는 표현 방법과 실루엣 내에서의 비대칭과 불균형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림 16)의 의상은 좌우 비대칭의 디자인을 통하여 비구조성을 엿볼 수 있는 의상이다. 이 의상의 하의 왼쪽은 부풀어진 패드로 인하여 새로운 실루엣을 만들어 표현하였고 오른쪽 부분은 왼쪽의 형태를 가림으로써 좌우 비대칭을 표현하였다. 또한 이 의상은 허리선~무릎과 무릎~발목까지 갈수록 실루엣이 부풀어져 왜곡된 실루엣을 보여주고 이러한 왜곡된 실루엣은 전위적이고 일탈



<그림 16> Comme des Garçons 2015 S/S Collection (Vogue.com.n.d-o)



<그림 17> Inbar Spector 2012 F/W Collection (Vogue.com.n.d-p)



<그림 18> Comme des Garçons 2011 F/W Collection (Vogue.com.n.d-q)



<그림 19> Amaya Arzuaga 2011 S/S Collection (Vogue.com.n.d-r)



<그림 20> Comme des Garçons 2013 S/S Collection (Vogue.com.n.d-s)

이미지가 잘 나타난다. 인바 스펙터(Inbar Spector) 2012 F/W Collection의 의상은 면의 비평형적 결합을 제작된 사각형의 입체적인 형상을 반복, 결합시켜 벌집구조와 같은 입체적인 형상을 구축하였다. 이 의상은 착용자의 움직임에 따라 형태가 변화하고 입체감이 형성된 주름 장식이 온 몸을 뒤덮음으로써 수직, 수평 개념과 구조를 벗어난 전위적이고 해체적인 이미지를 보여준다(그림 17).

(그림 18)은 재킷을 분해한 후 소재, 무늬, 색상이 모두 다른 아이템을 붙여 비대칭적인 실루엣을 연출하였다. 이 의상은 좌우에 디테일이 다른 소재를 사용하여 소재, 색상, 형태, 무늬를 대비시켜 시선이 집중될 뿐 아니라 기존의 재킷을 다양한 소재를 사용하여 새로운 형태로 변화시킴으로써 해체적이고 전위적인 이미지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19)는 시스루(see-through) 드레스에 구조의 틀을 활용하여 공간감을 부여한 의상이다. 이 의상은 뫼비우스(möbius)의 띠와 같은 기하학적인 형태를 오른쪽에 배치시킴으로써 좌우 비대칭적인 효과를 연출하였고 전위적인 이미지를 보여준다.(그림 20)에서는 블랙 컬러의 소재를 이용하여 구축적인 디자인의 의상이 아닌 여러 패턴을 겹쳐서 하나의 드레스로 완성된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이 의상은 2~3가지의 아우터를 길게 어깨에 늘어뜨려서 자연스럽게 주름을 표현하고 있으며 이러한 표현 기법을 통해서 이 의상은 비구축적이고 전위적인 이미지가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이 2011년 이후 현대 패션에 나타나는 비구축성은 패턴구성에 의한 외형적 실루엣이

주는 좌우 비대칭성, 패딩이나 모피, 이질적인 소재를 활용하거나 오리가미(origami) 등 다양한 표현방법을 통하여 나타난다. 또한 비구축성의 표현방법은 기존 의복의 실루엣에서는 볼 수 없는 특이한 형태의 비구축적인 디자인이나 앞여밈의 형태, 길이의 변화, 의복의 불완전한 형태 등 시각적 불균형을 통한 비구축적인 형태와 네크라인의 비대칭, 좌우 디테일의 크기 및 기장의 불균형, 상하 좌우 장식적 이미지의 혼합 등 내부에서 볼 수 있는 형태로 표현된다.

IV. 결론

본 연구는 2010년 이후 주목받고 있는 맥시멀리즘의 개념과 다양한 분야에서의 표현유형을 통하여 현대 패션에 나타난 맥시멀리즘의 특성을 정립하고 이를 통하여 2011년~2016년 맥시멀리즘의 표현이 잘 나타난 현대 여성복 컬렉션 사진 자료 5,681점을 통하여 맥시멀리즘의 조형성을 분석하여 여성복 디자인 연구에 기초 자료를 제공하여 창의적인 디자인 개발에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각 예술 분야에서 나타난 맥시멀리즘의 표현 특성은 문학에서는 확대과장성, 장식성, 퓨전성, 회화에서는 확대과장성, 장식성, 퓨전성, 비구축성, 건축에서는 확대과장성, 장식성, 퓨전성, 디자인에서는 장식성, 퓨전성, 비구축성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통하여 예술에 나타난 맥시멀리즘의 특성을 확대과장성, 장식성, 퓨전성, 비구축성으로

정리하였다. 2011년 이후 여성복 컬렉션의 맥시멀리즘의 조형성은 선행연구를 토대로 확대과장성, 장식성, 퓨전성, 비구조성 4가지로 유형화하여 패션디자인의 조형성을 살펴보았다.

첫째, 확대과장성은 맥시멀리즘의 조형성 중 가장 돋보이는 특성으로 2011년 이전과 달리 과도하게 실루엣을 과장시키지 않는 표현과 다양한 소재나 소재의 중첩을 통하여 과장된 실루엣을 표현하는 방법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또한 의복의 요소인 소매나 어깨라인 등을 확대, 과장시켜 새로운 실루엣을 창조하거나 장식 요소의 확대와 중첩을 통한 과장으로 표현되었다. 이러한 확대과장성은 맥시멀리즘의 본연의 특성인 화려함과 거대함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디자이너의 창의적 의도와 작품세계를 제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장식성은 2011년 이후 맥시멀리즘이 나타난 여성복 디자인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러플, 리본, 러프, 코르사주 등 다양한 의복 장식들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의복의 실루엣을 과장되게 변형시켜 표현하였다. 또한 장식성의 표현방법은 수공예적인 액세서리나 스팽글, 레이스, 모피, 펠트 등 다양한 소재의 혼합과 혼재된 다양한 패턴의 혼합 등을 통하여 의복 자체보다는 장식이 더욱 강조되는 효과를 연출한다. 이러한 요소들의 결합은 의복 자체가 아니라 장식이 더욱 강조하는 효과를 연출할 뿐 아니라 키치적이거나 로맨틱 감성, 에스닉 이미지가 잘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셋째, 퓨전성은 2011년 이후 다양한 문화의 혼합과 더불어 샵들리에 등 일상용품과 의복의 결합과 자연적인 오브제와의 혼합을 통하여 유희성과 에스닉 이미지를 추구하였다. 또한 퓨전성은 2011년 이전과 달리 동물이나 인체와의 혼합과 과거와 현대 이미지의 혼합 등 이질적인 소재의 혼합을 통하여 표현되었다. 이러한 맥시멀리즘의 퓨전성은 전위적이고 새로운 이미지를 창조하였다고 할 수 있다.

넷째, 비구조성은 패턴구성에 의한 외형적 실루엣이 주는 좌우 비대칭성, 비구축적인 디자인 등 전체적인 형태에서 볼 수 있는 비구조적인 형태와 2011년 이후 비구조성은 패딩이나 모피, 이질적인 소재를 활용하거나 오리가미(origami)등

다양한 표현방법을 통하여 특이한 형태의 비구축적인 디자인으로 표현된다. 또한 비구조성의 표현 방법은 앞여밈의 형태, 길이의 변화, 의복의 불완전한 형태 등 시각적 불균형을 통한 표현방법과 네크라인의 비대칭, 좌우 디테일의 크기 및 기장의 불균형, 상하 좌우 장식적 이미지의 혼합 등 내부에서 볼 수 있는 형태로 표현된다. 이러한 비구조성은 실험적이고 전위적인 이미지가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고 패션 디자이너에게 창조적인 디자인을 창출해낼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맥시멀리즘의 조형성은 단순히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의 하나의 사조적 경향으로 나타난 표현 기법이 아닌 시대와 공간을 넘어 현대 패션에서 다양한 실루엣의 탄생이나 이질적인 소재나 일상용품이나 이질적인 오브제와의 디자인 혼합 등을 통하여 패션 디자인의 모티브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디자인 표현 방법은 패션디자이너들에게 인체나 일상용품등의 다양한 오브제의 활용이나 표현방법에 대하여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 선행연구와 컬렉션을 통해 분석한 맥시멀리즘의 조형성은 사진을 분석하고 분류하는데 주관성을 배제할 수 없었다. 따라서 향후 후속연구로 보다 다양한 컬렉션 자료를 이용한 다각적 연구가 필요하고 보다 다양한 자료와 객관적인 분석으로 연구의 정확도와 신뢰도를 높이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참고문헌

- . (2016.11.01). 더 과감하게 오버하라. 동아일보. 자료검색일 2017. 3. 6, 자료출처 <http://news.donga.com/3/all/20161110/81256992/1>
- 김옥동. (1992). 미니멀리즘과 맥시멀리즘. *문화예술*, 150, 14-19.
- 김정연. (2007). *맥시멀리즘의 공간 표현 특성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지혜, 유영선. (2015). 남성복에 나타난 맥시멀리즘의 표현 특성 연구. , 65(5), 1-13.
- 김현진, 이은숙. (2011). 맥시멀리즘 특징을 이용

- 한 패션디자인의 표현성 연구. *한국의류산업 학회지*, 13(1), 7-16.
- 박수연, 김미영. (2016). 레이 가와쿠보 컬렉션에 나타난 맥시멀리즘의 표현 특성 분석. *복식문화연구*, 24(5), 626-641.
- 박은경. (2008). 현대 패션에 표현된 맥시멀리즘에 관한 연구. *복식*, 58(3), 1-18.
- 사와 타카미즈. (1995). *자본주의의 재정의*(홍성태 역). 서울: 도서출판 푸른숲.
- 손지현. (2004). 포스트모더니즘과 초등학교 미술교육과정에 관한 고찰. *미술과 교육*, 5(2), 69-94.
- . (2011). *크리에이티브 요소로서의 맥시멀리즘의 표현유형 별 효과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 노운선. (2011). 빅터&롤프 작품에 나타난 맥시멀리즘 연구. *복식문화연구*, 11(4), 61-79.
- 이지현, 노운선. (2012). 알렉산더 맥퀸 작품에 나타난 맥시멀리즘. *복식*, 62(6), 165-181.
- 이지현, 노운선. (2013). 장 폴 고티에 작품에 나타난 맥시멀리즘의 조형성에 관한 연구: 오프쿠튀르 컬렉션을 중심으로. *조형미디어학*, 16(4), 205-214.
- 이효진. (2003). 현대복식에 표현된 맥시멀리즘 연구. *복식문화연구*, 11(2), 275-292.
- 정선화, 정현주. (2009). 패션 컬렉션에 나타난 맥시멀리즘 패션 표현유형 분석. *한국의상디자인학회지*, 11(1), 157-167.
- 조규화. (2002). *복식미학*. 서울: 수학사.
- Alexander McQueen 2012 F/W Collection. Vogue. Retrived 2017. 2. 5, from <http://www.vogue.com>
- Amaya Arzuaga 2011 S/S Collection. Vogue. Retrived 2017. 2. 5, from <http://www.vogue.com>
- Carol, S., & Boswell, J. (2007). *The Annotated Mona Lisa*. KS: Andrew Mcmeel Publishing.
- Comme des Garçons 2011 F/W Collection. Vogue. Retrived 2017. 2. 5, from <http://www.vogue.com>
- Comme des Garçons 2012 F/W Collection. Vogue. Retrived 2017. 2. 4, from <http://www.vogue.com>
- Comme des Garçons 2013 S/S Collection. Vogue. Retrived 2017. 2. 5, from <http://www.vogue.com>
- Comme des Garçons 2015 S/S Collection. Vogue. Retrived 2017. 2. 5, from <http://www.vogue.com>
- Comme des Garçons 2016 F/W Collection. Vogue. Retrived 2017. 2. 8, from <http://www.vogue.com>
- Cuito, A. (2002). *Minimalism Maximalism*. NY: Hearst.
- Delville, M., & Morris, A. (2005). *Frank Zappa, Captain Beefheart and the Secret History of Maximalism*. MA: Salt Publishing.
- Dolce & Gabbana 2013 F/W Collection. Vogue. (n.d-g). Retrived 2017. 2. 5, from <http://www.vogue.com>
- Dries Van Noten 2012 F/W Collection. Vogue. Retrived 2017. 2. 5, from <http://www.vogue.com>
- Gareth Pugh 2015 S/S Collection. Vogue. Retrived 2017. 2. 10, from <http://www.vogue.com>
- Gastaut, A., & Criqui, J.P. (2005). *Off the wall: Psychedelic Rock Posters from San Francisco*. London: Thames & Hudson.
- Inbar Spector 2012 F/W Collection. Vogue. Retrived 2017. 2. 8, from <http://www.vogue.com>
- Lanvin 2012 F/W Collection. Vogue. Retrived 2017. 2. 5, from <http://www.vogue.com>
- Moschino 2016 F/W Collection. Vogue. Retrived 2017. 2. 5, from <http://www.vogue.com>
- Maximal. Merriam-Webster Dictionary. Retrived 2017. 1. 3, from <https://www.merriam-webster.com>
- Paco Rabanne. 2012 S/S Collection. Vogue. Retrived 2017. 2. 5, from <http://www.vogue.com>
- Pincus-Witten, R. (1983). Entries (maximalism): Art at the turn of the Decade. NY: OOLP (Out of London Press) Inc.
- Rick Owens 2016 S/S Collection. Vogue. Retrived 2017. 2. 5, from <http://www.vogue.com>
- Rivers, C. (2008). *Maximalism: The Graphic D*

esign of Decadence & Excess. London: Roto Vision.

Thom Browne 2012 F/W Collection. Vogue. Retrieved 2017. 2. 5, from <http://www.vogue.com>

Thom Browne 2013 F/W Collection. Vogue. Retrieved 2017. 2. 5, from <http://www.vogue.com>

Vetements 2015 S/S Collection. Vogue. Retrieved 2017. 2. 5, from <http://www.vogue.com>

Victor & Rolf 2011 S/S Collection. Vogue. Retrieved 2017. 2. 5, from <http://www.vogue.com>